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10명 한자리에

국립무형유산원, 22·29일 해설이 있는 '전통예능의 품격' 공연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22일과 29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마루 대공연장에서 해설이 있는 '2022 전통예능의 품격'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정통 공연으로, 올해 만나 봐야 할 최고 기량을 갖춘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보유자 10인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에 따르면 22일 첫 공연은 공력 있는 소리로 느낌의 미학을 노래하는 가곡 보유자 이동규, 고제 가야금병창의 맥을 물려받은 이고 있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강정열, 정성스러운 소리와 풍부한 성음으로 춘향가에 울고 웃는 인생을 담아내는 관소리 보유자 안숙선, 전통의 정신을 이어 오늘날 시대정신에 맞는 춤사위로 국태민안의 염원을 담아내는 태평무 보유자 박재희, 몸짓에 연연하지 않는 춤사위로 사회에 밝음을 전하는 고성오광대 보유자 이윤석 등 5인이 예술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29일에는 고아함 속에서도 섬세한 표현을 통해 가사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하고자 하

는 가사 보유자 이준아, 굽이굽이 넘나드는 맑고 선명한 경기소리 가락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탄탄하게 이끌어가는 선율의 맥 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정중동의 우아함으로 슬픔을 환희로 승화시키는 살풀이춤 보유자 정명숙, 탈을 쓰고 삶의 애환을 달래주며 공동체와 하나를 이뤄가는 통영오광대 보유자 김홍종 등 5인이 출연해 멋스러운 소리와 몸짓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서는 무형유산을 보다 잘 이해하고 예인들의 예술 세계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의 눈과 귀를 한층 더 품격 있게 높여 줄 예정"이라며, "해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은선 위원 맡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 공연은 무료이며, 사전예약제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모든 공연은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



'2022 전통예능의 품격' 포스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또는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 동의보감 완영책판을 품다' 특별전시

완판본문화관서 진행

전라도의 수도(首都)이자 조선 출판문화의 중심지, 전주의 웅성했던 출판문화를 되새겨보는 특별전시가 완판본문화관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이 주최하고 문화재청, 경상남도, 산청군이 후원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활용·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다. 완판본문화관은 2021년 협력기관으로 선정, 올해도 동의보감 판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전시, 인문학강연, 기록문화체험을 2년 연속 주관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는 전라감영에서 간행됐던 다양한 출판물을 소개하고, '동의보감'의 유일한 책판을 더욱 가깝게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전시를 마련했다. 목록(目錄), 내경편(內景編), 외형편(外形編), 잡병편(雜病編), 침구편(鍼灸編), 탕액편(湯液編) 총 6점이 공개되며 책판의 형태, 고정 방법, 책판의 수정과 보수를 했던 보각(補刻)의 흔적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안상우 단장은 "'동의보감' 완영책판은 한의학적 지식의



보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입본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며 "동의보감 활용 홍보 사업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준영 관장은 "완영책판에는 시대를 넘어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정신이 새겨져 있다"며 "완영책판을 지켜낸 전주의 기록문화 수호정신은 완영책판과 함께 남은 우리 지역의 문화 정체성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앞으로도 전주의 기록문화유산을 지키고 일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벼꽃향미-심리향쌀로 완성한 전주비빔밥 조리 워크숍

전주대 주최 비빔밥에 최적화된 쌀의 물성·조리법 강연

제14회 2022년 전주비빔밥 축제가 6~10일 5일 간 전주한옥마을 향교길에서 열렸다.

특히 축제 기간 중 7일 전주대학교 한식스타홀에서는 한식조리학과 차진아 교수 주최로 '전라북도 명품쌀 벼꽃향미-심리향쌀로 완성한 전주비빔밥 조리 워크숍'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어 10일에는 '스타셰프 손성수의 100인의 빼에야' 시연과 시식 행사가 축제 참여

자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빔밥 조리 워크숍은 조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주비빔밥에 최적화된 쌀의 물성과 조리법에 관련한 여러 전문가의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전주비빔밥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강연이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음식전문가 박종숙 원장의 진행으로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유영석 박사의 '벼꽃향미-심리향쌀의 개발과정과

브랜드스토리' 강연과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차진아 교수의 '완벽한 한 그릇, 전주비빔밥' 강연과 시연, 그리고 손성수 셰프의 '전주비빔밥과 빼에야의 만남', '벼꽃향미 토크쇼' 순서로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차진아 교수는 "비빔밥은 지역의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에 뛰어난 조리법, 정성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완벽한 한 그릇 음식"이라고 말했다.

'100인의 빼에야' 손성수 셰프는 시연과 토크쇼에서 "빼에야는 한국의 비빔밥과 비슷한 대표적인 스페인 음식인데, 이 음식에 사용되는 쌀은 알알이 맛을 품고 있지만 서로 달라붙지 않아야 좋다"면서, "벼꽃향미는 그런 제 요구에 맞는 완벽한 쌀이며, 조리 과정 중간에 쌀알을 투입하는 많은 외국 요리에서 환영받을 만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의 진행을 맡은 한식전문가 박종숙 원장은 "오늘 손성수 셰프가 선보인 빼에야처럼 비빔밥에 적합한 쌀은 여러 식재료와 잘 섞여서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 재료의 물성과 맛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 명품 쌀인 벼꽃향미-심리향쌀은 비빔밥에 최적화된 물성과 맛을 가졌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차진아 교수가 '완벽한 한 그릇, 전주비빔밥'을 강연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아트 웨이 데이-전주 미술장터'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9~23일 까지 팔복예술공장 카페 씨니에서 '아트 웨이 데이-전주 미술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트 웨이 데이-전주 미술장터'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2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에 선정돼 열리는 행사로, (재)전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청년예술단체 문화이리가 주관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미술장터에는 지역 청년 예술가 총 19명이 참여해 원화작품, 에디션, 아트상품 등 100점 이상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미술장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미술품 향유와 소장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대 행사로

는 라이브 스케치북 체험 프로그램과 살롱드 국악 선율모리 공연도 선보여 청년 예술가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문화이리 전성민 대표는 "지역의 청년예술단체와 함께 하는 '아트 웨이 데이-전주 미술장터'를 통해 지역 청년 예술가의 활동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5일간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되는 미술장터 행사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이리(www.cultureari.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박물관, 함께 하는 세상의 따뜻함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김은희)은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특별한 영화'를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편견 없는 문화향유를 누리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은 국립대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해마다 참여하는 지역민 및 지역 농어인협회 및 수어협회 회원들의 사랑과 호응으로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함께 하는 세상의 따뜻함을 나누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은 19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영화 '모가디슈'를, 11월 8일은

온라인을 통해 '남매의 여름방'을 상영할 예정이다.

한편 배리어프리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온라인 상영영화는 상영 전일에 영화관람 링크가 발송돼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24시간 내 관람 가능하다.

김은희 관장은 "지속적인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및 체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개선의 장을 만들고, 지역민과 함께 보다 성숙하고 의미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박물관 학예실(063-270-408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